

럭키,ABS시장서 급속 후퇴

상반기 6만8500톤 판매 37% 차지 ... 전체수요 16만1000톤

올해 상반기 ABS생산은 15만5000여톤,판매는 내수 8만4400톤, 수출 7만6700톤으로 총 16만1100톤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판매현황을 보면 92년 ABS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던 제일모직이 2위로 부상,시장판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ABS시장에서 럭키가 아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와같은 급속한 시장변화로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ABS생산 판매실적(93년 상반기)				(단위 : M/T, %)				
구 분	럭 키	제일모직	한남화학	신 아	효성BASF	합 계	구성비	
생 산	67,880	32,740	28,830	12,910	12,470	154,830	-	
판 매	내 수	24,400	10,580	9,800	3,550	3,450	51,780	32.1
	로 칼	15,830	10,770	3,140	670	2,200	32,610	20.2
	소 계	40,230	21,350	12,940	4,220	5,650	84,390	52.3
	M / S	36.8	21.9	19.2	13.4	8.7	100	-
	수 출	28,230	16,780	14,740	10,300	6,680	76,730	47.7
	합 계	68,460	38,130	27,680	14,520	12,330	161,120	100

특히 90년초 50%를 밑돌았던 공급과잉률이 92년에는 90%에 이르고 국내수요 증가율도 계속 감소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별 현황을 보면 럭키는 6만8000톤을 생산해,국내 4만톤, 수출 2만8000톤으로 총 6만8500톤을 판매해 37%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제일모직은 3만3000톤을 생산, 국내 2만1300톤 · 수출 1만7000톤으로 3만8000톤을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22%로 끌어올렸다.

이로 그동안 2위를 지켜왔던 한남화학은2만9000여톤을 생산,국내 1만3000톤 · 수출 1만5000톤으로 총 2만7700톤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20%의 시장점유율로 3위로 밀려났다.

이외 신아 및 효성바스프는 각각 13.4%, 8.7%의 시장점유에 그쳤다.

용도별로 보면 전기 · 전자가 60%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8%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 · 전자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수입도 이와같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90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15%씩 감소되어 왔다.

<화학저널 1993/9/13>